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 | |
|---------------|--------------|
| 29(土) | 30(日) |
| | |
| 흐려져비 4/17℃ | 비후결 7/12℃ |

News

-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②
- 고철값 폭등 고물상 '울상' ③
- 2008 프로야구 개막 ⑧

Books

- 황제를 지배한 여인들 ⑭

Entertainment

- 추억의 명콤비 돌아온다 ⑧
- 전천후 영화인들 '주목'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잣 ⑬

“초반 판세 장악”

광주 전남 주말·휴일 유세전 ‘불꽃’

총선 D-11

18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처음 맞는 주말·휴일 대회전에서 각 후보 진영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초반 판세 장악에 나설 태세여서 불꽃 튀는 유세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총선을 11일 앞두고 전개되는 이번 유세전은 전체적인 선거 판세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 유권자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무소속 벨트’로 묶인 지역은 이번 주말 대회전에서 통합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고되고 있다.

28일 광주·전남지역 각 총선 후보 진영에 따르면 이번 주말 대회전 결과에 따라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 한 만큼 모든 조직을 총동원, 선거 초반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합민주당 후보 측에서는 이번 주말 한나라당 견제론 등을 내세워 대세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며, 조직에서 말리는 한나라당 후보 진영에서는 대규모 유세전보다는 바둑을 돌려 지지율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노동당과 평화가족통합당 후보 진영에서도 주말 유세를 통해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기존 조직을 총동원, 표심 잡기에 나설 방침이다.

‘무소속 벨트’로 묶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통합민주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이 주

말대회전을 통해 치열한 유세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주말 유세전에서는 무소속의 박지원 후보와 통합민주당의 정영식 후보 간 ‘목포 대전’이 예고된 상황이다.

박 후보는 목포역에서의 대규모 유세를 통해 ‘목포의 눈물’을 자극한다는 계획이며, 정 후보는 ‘목포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하당 신도심 등 바둑 다지기에 나선다.

무안·신안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바둑을 돌려 아들인 무소속 김홍업 후보 지지로 호소, DJ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황호순 통합민주당 후보는 무안 장터 등을 돌려 대세 굳히기에 나선다.

해남·진도·완도에서는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가 기존 조직을 풀가동, 대세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며 무소속의 김영록 후보는 상승세를 바탕으로 ‘해남 공략’에 나서고 있다.

광주 남구에서는 통합민주당의 지병문 후보가 한나라당 견제론 등을 내세우며 추격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으며 무소속의 강은태 후보는 골목 유세를 통해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 북구 갑과 광산구 갑에서는 통합민주당의 강기정, 김동철 후보가 주말 유세를 통해 대세 굳히기에 나서고 무소속의 한화갑 후보와 송병태 후보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염부들이 27일 노을이 붉게 물든 염전에서 천일염을 수확하고 있다. 그동안 ‘광물’로 분류돼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천일염은 28일부터 정식 ‘식품’으로 등록돼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최혜기기자 choi@kwangju.co.kr

28일부터 ‘식품’된 천일염 ... 신안 증도 태평염전 르포

염전에 ‘소금꽃’ 얼굴엔 ‘웃음꽃’

“잔맛이 나다가 나중엔 구수한 단맛이 나는 천일염처럼 우리들도 곧 허리 활짝 펴고 웃을 날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45년 동안 ‘광물’로 분류돼 천덕꾸러기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천일염’이 이젠 ‘식품’으로 정식 인정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식탁 위에 오르게 됐다. 염전업자들도 천

시켜 만든 정제염이나 값싼 수입산 소금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염전업자와 지자체 등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해 국회에서 ‘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 28일부터 정식 ‘식품’으로 격상돼 첫 수확을 하게 된 것이다.

아 제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식품이 되면서 가격도 덩달아 올라 ‘노동의 대가’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만㎡의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신(59)씨는 “식탁 위에 합법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니 천일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느낄 수 있을 거 같다”며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소금을 공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중환(55)씨도 “수입용 소금에 뒤지지 않기 위해 늦더라도 좋은 날씨에 수확하기 위해 날짜까지 미뤄가며 기다리고 있으며 위생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일하고 있다”며 “식품이 돼서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 만큼 염부들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식품으로 승격됐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더욱 까다로워지는 위생 기준을 맞춰야 하며, 평가절하돼 있는 가격 또한 올라야 만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신안=조원범기자 wncho@kwangju.co.kr

45년간 ‘광물’ 신세 ... “이젠 제값 받겠죠” 맛·건강 지키는 신비의 효능 부푼 기대

일염을 제값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동안 천일염은 ‘식품’이 아닌 ‘광물’로 취급돼 김치 등 절이는 데를 제외하고는 음식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 천일염이 일반가정에서 젓갈이나 김치, 장류(된장·간장·고추장 등) 등을 담글 때 널리 사용돼 오면서도 관련 규정 미비로 밥상에는 제대로 오르지 못한 것이다. 대신 일반가정에서는 바닷물을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

“영광 중의 영광이죠, 정식으로 호적에 올라간 기분입니다. 이제 식탁에서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천일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알려낼 것입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 염부들은 무척 반기는 분위기다. 천일염이 프랑스에서 나오는 값비싼 소금인 ‘계랑드 소금’보다도 미세랄 등이 풍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오면서도 ‘광물’인 탓에 용도가 다양치 않

北, 서해상서 미사일 발사

靑 “통상 훈련...상황 주시”

북한이 28일 오전 10시30분께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세 차례에 걸쳐 최소 3발에서 최대 6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날 “오늘 오전 중에 서해상에서 북한의 단거리 유도탄(미사일)이 발사됐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도탄 성능확인 및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미사일은 평안남도 증산 인근 서해상에 있던 함정에서 북동쪽 육지방향인 평남 문덕군 인근 해상으로 모두 세 차례 발사됐다.

군은 미사일 종류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그간 함정에서 주로 사거리 46km의 함대함(스틱스) 미사일을 발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종류로 추정되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북한도 남북관계의 경색을 바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유입학생 561명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3월 29일

광주전도서의 중점추진중

누리는 3,813 톤대만져?

정확한 추수율과 수확기 관리

수확신도시 피오레

문의문의 062) 367-3000